소통하고 하나되는 뜻깊은 날

청천중 '행복을 실현하는 참된 스승의 날' 행사 진행

청천중학교(교장 한상옥)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행복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1일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학생들 스스로 스승의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기획·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감사편지 쓰기, '스승의 은혜' 개사 및 편곡해 불러드리기, 꽃 달아드리기, 자유롭게 학급 꾸미기, 선생님에게 롤링페이퍼 쓰기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승의 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4월 28일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직접 손수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코싸지를 만드는 활동을 학교에서 진행했다. 학급을 대표하는 어머니들이 모여 평소 애쓰시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손수 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진행했다.

스승의 날 5월 15일 학급에서는 학급 임원을 주축으로 학급 아이들 모두 하나 돼, 스승의 날 학급행사를 준비했다. 풍선 및 각종 장식으로 학급을 꾸미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연습하고 선생님께 감사 편지 및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며 즐겁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몸소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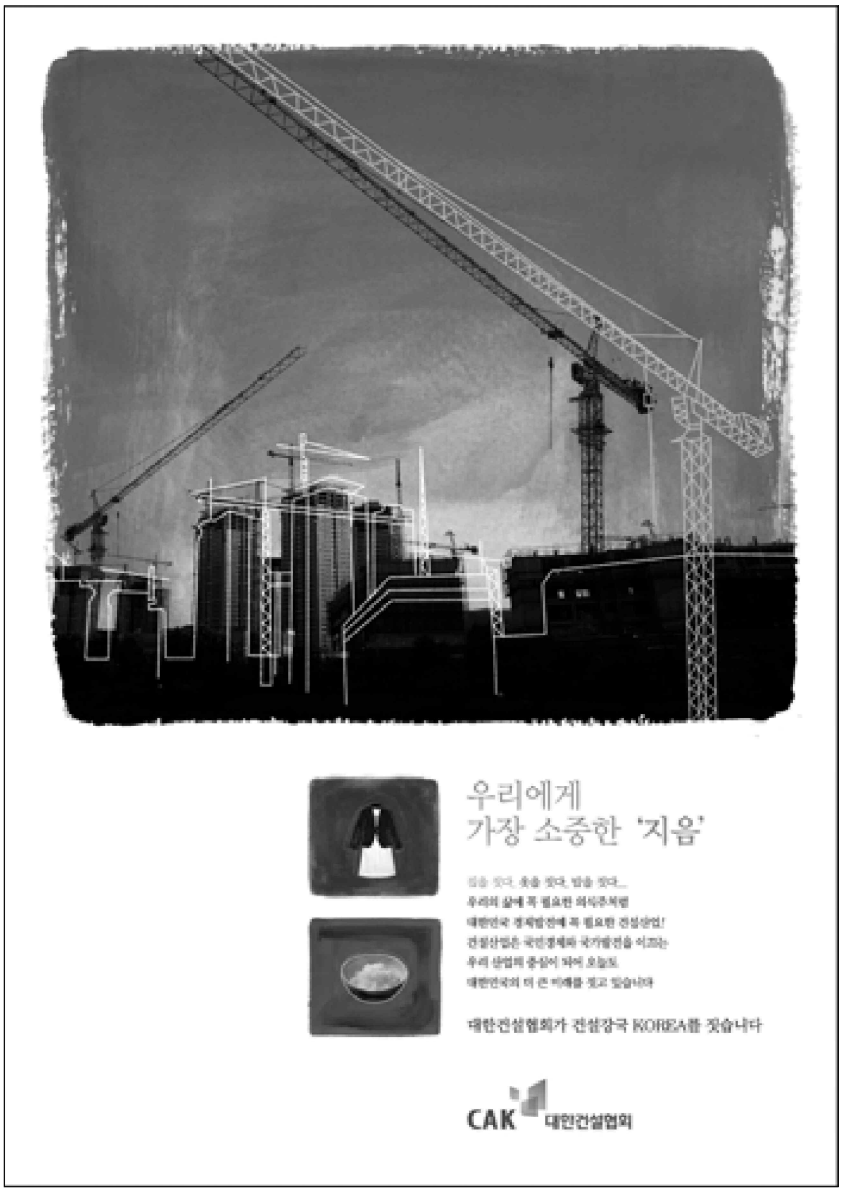
한상옥 교장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및 행사를 통해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하나 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모두 하나 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데 전 교직원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0일 검암도서관에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참동이) 5월 참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다음달 7일 개관 예정인 '검암도서관에 대한 사전탐방'과 지난 4월 탐방을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분과별 보고서 작성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실시한 검암도서관 탐방활동에는 어린이참여위원회 학부모도 함께 참여했으며, 참동이들은 도서관의 주 이용대상자인 어린이를 대표해 검암도서관의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아동권리 측면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했다. 특히, 검암도서관 1층에 자리한 어린이 전용 열람실인 '꿈터/자람터'에 대해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 창의 인재로 쑥쑥~

인천연송초,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융합과학체험 한마당

인천연송초등학교(학교장 박경덕)는 5월 16일 전교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연송 융합과학체험 한마당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래과학교육을 준비하며 처음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됐다.

행사당일 9시부터 12시 10분까지 대략 3시간 동안 연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1~2교시는 1, 2학년이, 3~4교시는 3, 6학년의 전교생이 다양한 과학체험을 경험할 수 있고 과학원리를 찾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80여 분의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교사로서 진행을 도와줌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사였다.

연송 융합과학체험 한마당에서 박경덕 교장은 "연송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배려하면서 과학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융합과학체험 한마당은 총 8개의 활동을 코너학습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드론체험, 다양한 과학원리가 모인 골드버그 장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 본 추억의 아이스께기 만들기, 다양한 곤충전시 체험,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울의 미로, 알쏭달쏭 액체일까? 고체일까?,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신기한 공기 대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져간 LED 회전 바람개비 등 학생들의 얼굴에는 신기함과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융합과학체험 한마당이 모두 끝난 후 학생들은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함께 학부모 교사로 참여한 대다수의 학부모도 "고되고 힘들지만, 학생들에게 행복과 재미를 선물한 것 같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송 학생들이 미래의 창의인재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안용섭 기자 ays@

숲 속에서 소통을 배우다

인천상정초, 제2회 행복 가득, 사랑 나눔, 가족 숲 체험

인천상정초등학교(조정길 교장)에서는 5월 13일 '제2회 행복 가득, 사랑 나눔, 가족 숲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주변의 함봉산, 호봉산의 숲을 탐방해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봄을 실천하자는 취지를 갖고 행사를 진행했다.

교장, 교감을 비롯한 여러 교사와 학생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장의 인사 말씀과 주의 사항을 듣고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선생님과 여러 가족이 한 팀을 이뤘고, 팀별로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탐방을 통해 제작된 숲 체험 지도를 보며 코스를 숙지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태문제 맞히기, 가족사진 촬영하기, 선물 증정식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6학년 김모 학생은 "학교 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즐거웠고,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2학년 이모 학생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함께 가족 숲 체험 행사에 참여하니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조정길 교장은 "가족 숲 체험 행사는 가족 간, 사제간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상정 교육공동체 상호 간에 공감과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으며, 상정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배려와 나눔의 마음 배우다

신현중,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신현중학교(교장 이석봉)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실천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의 인성이 자라는 행복 교육을 운영했다.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및 효행 캠페인을 실시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을 기르고 학교 내 효행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효행 캠페인에 참가한 3학년 최모 학생은 "처음으로 효행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피켓을 들고 있을 때는 쑥스럽고 효과도 의심스러웠는데 한 주가 지나가는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고 캠페인 활동을 한 걸 아신 부모님이 너무 기특해하셔서 제가 큰 효도를 한 기분이에요!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친구 사랑 주간을 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칭찬샤워', '바른말 서약식', '친구 사랑 공감 형성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존중의 역량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즐거운 등교 맞이 허그데이 이벤트'로 학생들과 교직원이 하나 돼 사랑으로 감싸안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함께 뛰며 하나가 되다

동방스포츠클럽 대축제 개최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장근수)는 5월 19일 전교생이 함께하는 '동방스포츠클럽 대축제'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근수 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며, 즐거움 속에서도 배려와 질서가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동방인으로 성장하는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곧바로 시작된 학년별 여학생들의 라인댄스는 색색의 학급 단체복으로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이어진 '파도봉 이어달리기' 및 '8자 마라톤 줄넘기'는 학급의 협동심이 돋보였다. 그리고 모든 학교 체육 대회의 대미인 400m, 800m 계주에서 학생들은 때 이른 불볕더위도 무색한 열띤 응원을 하며 뱃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도록 함성을 쏟아냈다.

다양한 종목에 참여한 3학년 선민구 학생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승패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말했고, 마지막 체육대회를 1위로 마감한 3학년 안지윤 학생은 "확실히 체육대회를 해 보면 학급 친구들이 똘똘 뭉쳐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기분을 잊지 않고 졸업 때까지 이어가고 싶습니다"라며 체육대회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인천동방중학교는 이번 체육대회를 더 많은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좁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1,100여 명의 전교생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안용섭 기자 ays@